

보도자료

서울 광진구(을) 국회의원 **고민정**



담당자 안순모 보좌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1 FAX 02-6788-6055

배포일 : 1월 26일(목)

국내 중동 전문가 “ ‘이란 적’ 발언 해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 민주당 ‘중동외교 긴급좌담회’ 에서 해법 제시
- 발언 당사자 대통령이 전화통화 등 통해 오해 풀어야
- 대통령 특사나 외교부 고위급 협상단 파견 등 노력 필요
- ‘대통령 심기관리’ 보다 ‘국가 안위와 국익’ 에 더 집중해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이라는 발언에 대해 국내 중동외교전문가들은 이란 최고 지도자와의 전화통화 등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양국 간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위원장 고민정)>와 강민정·김민석·소병철·허영·홍기원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길 잃은 중동외교, 어디로 가야 하나’ 긴급 좌담회에서 유달승 한국외대 교수(페르시아어 이란어과)는 이란이 이번 사건을 한-이란 관계를 재검토하는 판단기준과 근거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동결된 이란 원유 대금 반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유 교수는 “이번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란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서라도 이란과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교수(이슬람문화연구소장)도 “윤석열 정부가 화해·협력·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적대관계를 부추겨 외교문제를 일으켰다” 며 “고위급 대표 파견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미국과 협의하여 동결된 이란 원유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한다” 면서 “외교부의 의견이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에 전달되지 않는데, 그 매커니즘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1월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피랍됐던 한국 유조선 석방 과정에 참여했던 한병도 의원은 최근 여당 인사들이 대통령 발언이 틀리지 않았다고 핏대를 세워 오히려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세일즈 한다는 나라에서 중요한 상대국인 이란을 홀대해도 되는지 곤혹스럽다” 고 꼬집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일로 복잡한 국제관계 속, 적 아니면 친구라는 이분법만 하는 윤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을 확인했다” 며 “잘못된 인식으로 중동외교를 이끌어간다면 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좌담회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호중·김경협·김민석·김홍걸·홍기원·허영·박성준·전용기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좌담회를 마련한 고민정 특위 위원장은 “좌담회를 통해 △ 이란은 한국의 우호국이라는 메시지 △대통령 특사나 외교부 고위급 협상단 파견 △민간 채널을 동원한 이란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며 “대통령실과 국민 의힘은 ‘대통령의 심기관리’ 보다 ‘대한민국 안위와 국익’ 에 더 집중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또 “ ‘이란은 UAE의 적이 맞다’ 는 말을 강조할수록 한국 외교부가 외교력을 발휘할 공간은 줄어들고,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